

## 92학년도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 보고서

- 구비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 현대작가반 학술답사 보고서
- 방언반 학술답사 보고서
- 문현반 학술답사 보고서



## 구비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 1. 답사지역 및 조편성

구비문학반은 1992. 5. 6.(수)-同年 5. 9.(토)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서 설화, 민요, 무가 등을 조사, 채록하였다. 답사에 앞서 1992. 4. 30에 서대석 선생님으로부터 답사준비 및 조사방법에 관해 강의를 들었다. 참가인원은 지도교수 서대석 선생님을 비롯하여 총 19명이며, 아래와 같이 조를 편성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제 1조 : 서대석(지도교수), 정재민, 신동현, 정인숙(석사과정)

제 2조 : 신동흔(강사), 최귀묵, 최원오, 김동준(석사과정), 류준경(학부)

제 3조 : 이인경(박사과정), 이선재, 전병득, 이승희, 이경하(학부)

제 4조 : 박종성(박사과정), 신미경(석사과정), 후지 아사리, 최현재, 민영근(학부)

### 2. 조별 활동내용 및 자체평가회

각조별로 5. 6.(수)~5. 8.(금)까지 조사활동을 벌여 아래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 1조 : 홍천읍 일대 조사, 설화 10편, 민요 30여편 채록.

제 2조 : 북방면 일대 조사, 설화 15편, 민요 10편 채록.

제 3조 : 화촌면 일대 조사, 설화 23

편, 민요 12편 채록.

제 4조 : 남면 일대 조사, 설화 15편, 민요 20여편 채록.

5. 8.(금) 오후에 각조가 모여 홍천강 유원지의 팔봉산에서 巫女 조정순으로부터 치병굿과 하산굿을 조사, 채록하였다. 이후 저녁식사를 겸하여 자체평가회를 가져 각조별 활동상황과 각자의 소감 등을 말하였는데, 특히 각조별로 행한 정열적인 조사활동이 돋보였다. 이 자리에는 이상택 선생님께서 오셔서 답사반을 격려해 주셨다.

5. 9.(토) 아침식사 후 간단한 기념촬영을 하고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하 고 오전 11:00 경에 서울로 향했다.

### 3.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

1992. 5. 21 16:00 1동 203호에서 학과 주관으로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을 가졌다. 구비문학반은 김동준(석사과정)이 조사활동을 보고했다.

\* 이 지면을 빌어 바쁜 가운데서도 귀한 자료를 구연해주신 제보자 여러분과 홍천군청, 홍천문화원, 노인회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 지면 관계상 채록된 자료 중 일부만 수록한다.

## 1. 흥천군 흥천읍

〔조사마을 : 흥천군 흥천읍〕

군의 중서부에 위치한 읍으로 면적은 105.52km<sup>2</sup>, 인구 3만여명을 좀 넘는다. 면 소재지는 회망리이다. 남부에는 오음산, 매화산, 까끈봉등 높은 산이 솟아 있고, 북동부로는 흥천강의 여러 지류가 합치면서 서쪽으로 흐른다. 유역에는 범람원과 하안단구가 있어 주요 경작지로 이용된다. 주산업은 농업으로 하천 유역에는 벼농사가 행해지며 최근에는 흡 경작이 증가하고 있고, 사슴과 칠면조 사육도 성하다. 춘천-원주간 국도와 양평-인제 간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삼충 석탑과 당간지주, 사사자삼층석탑 등이 유물로 남아 있다. 국민학교 8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있다.

〔흥천읍 제보자 1〕

홍천읍 경로당, 신문현, 남 78세.  
1992. 5. 7. 서대석, 정재민, 신동현,  
정인숙 조사.

흥천읍 신장대 1리 7반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흥천 일대의 지명전설과 인물전설을 많이 알고 있었다. 원래 양평군 단월면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가 20대에 흥천읍으로 이주했다. 현재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릴 때 한학을 공부했다고 한다. 읍내의 문중 조직과 종친회의 활동에도 종사

하고 있었다. 박문수설화를 구역할 때에는 한문구를 들어가면서 일일이 글자를 풀어 구연했다. 서곡대사, 도선대사, 박문수에 관한 설화를 구연했는데, 구연 태도가 자연스럽고 안정되어 있었다. 발음은 정확한 편이었으나 기억상태가 그ти 좋은 편은 아니었고 가끔 이야기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박문수 설화〉 두편을 소개한다.

### 〈박문수의 삼쾌정〉

거기가 충북이지만 제천, 제천, 시방 계천시가 되기 때문에 제원군이야. 제원군 청풍면 도화동, 그 박문수 박어사 난 터두 가보고 그랬지. 그 도화동이야 도화동. 그 박문수 박어사가 그 박처사의 아들인데, 그 삼쾌정 예기체에 두 있지만, 거기가 그 제원군, 제천군이 아니라 청풍군인데, 청풍군이 삼체되 가주구 시방 계천 제원군이 되었지. 그래 제원군에 (불명)가 들이라 그래. 청풍군에 있을 적에 한조가 있고, 제원군에 있을 적에 한조가 있구.

근데 그 박문수 박어사가 과거, 그 삼쾌정에 과거허터 가는거야. 그 올라가다가 그저, 그 한군يل 갖는데, 예 한집에 들어가서 자자구 그리니깐, 아침두 크고 대가집인데,

“아 그래 쉬어가는건 좋은데 대접할 뷤이 없다구, 주인두 없구.”

“그 왜 그리냐구”

그리니깐, 그 노인이 있는데, 노인이

집에 와 있구 그 아들이 대신 속죄갔는네,

“그 으째 그리냐구”

그리니깐, 그 삼폐정에 뭐냐 그 메느리를 새루 울어 갔는데 메느리가 영 도저히 아주 어디 갔다 왔는지, 아주 기척이 없어. 그 메느리 방에 들어가니까 목에 이 칼을 찔려서 죽었다구. 그러니깐 의주(?)가 떠들기를 칼을 빼가 주구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봤어. 그 늙은이가 그 메느리를 접탈허려다가 칼루 사람을 찔렀다구.

그래서 잡혀 들어 갔는데, 아들이 흐자던지 아들이 즈 아부지 대신 속죄해서 참 옥에 가서 갇혀 있는게야. 그래 애, 뭐냐 박문수 박어사가 보니가 그 아주 참혹하게 두, 그래서 그 울라가다가 어딜 자는데, 어떤 중, 중허구 같이 자게 됐는데, 그 삼폐정 현 예기여, 그 중이 가만히 봐두 기색이 이상한 사람야. 그래 친하게 서루 자면서 니니 내니, 이새끼 저새끼 허구 인제 지난 일울 털어 놓고 이런데, 그래 인제 과거나 예기해 보자구. 그래서 그 이름이 살인천 놈이 이름이 혜관이지 아마, 그 예길 나누는데, 그래서

“아 그 느 중은 성에 대해서 그런거 없나구.”

“왜 없을 리 있느냐”

“어디가서 예전에는 중이 명 동냥을 했어. 웃이 넣는 숨, 명 동냥을 했어. 그 동냥을 허는데 아 보니깐, 새 새벽이 아 첫 시집을 샤파니깐, 문박에다 명을 내 놓고는 들어 간다. 그래 그 육

심이 나 가주구 쫓아 들어가니깐, 아주 발악을 허구 그랬다. 탄로가 나겠으니깐 칼루 절리 죽였어.”

개 늙은이가 죄를 뒤집어 써 가주구 아들이 속죄허구 옥에 들어 갔는데, 어사 예길 듣구서 남자가 그걸 못당허냐구 놓을 허다가, 과거를 해 가주구 내려와 가주구 개 어디 절에 있나구 허니깐 합천, 아마 협천이지. 협천 해인사에 있다구 그래. 그 그런거를 나라에 전부 풍허니깐 이 남도 암행어사, 시방은 국정감사여 암행어사가. 그래 가주구 종을 아 역줄덜 시켜서 불잡아다가 패니 그 저기 박문수가 두드려 패 가주구, 저 참 종을 잡아다가 그 때는 살인자 사라구 그 죽이구, 또 하나는 삼폐인배, 그러구 또 뭣인가 잊어 부렸어. 본지가 오래돼서, 그 어느(다른 노인이 들어오자 “아 우동이 어떻게 됐나”하고 인사를 한 후 계속 구연)

아주 외로운 사람인데, 자기가 데려다가 집에사 두고 있는데, 그 자기 자식은, 아들은 쪼그맣고. 게 사람은 참 자기 소생은 쪼그마서 글을 모를 정도인데 보니깐 늙은이가 죽으니깐, 그 사람이 모두 시간을 사재 가주구 부자를 살이.

그 아 야중에 그 사람이 성장해 가주구 예길 들으니까 그래. 아 그 아니라구 허는데 별 수 있나. 그래서 그 예기를 어떻게 듣구서는 그 나줄들을 역줄들을 지휘해서 글 잘하는 사람을 그리 선생해서 가구, 일잘하는 사람은 일꾼으로 가 있구. 그래서 그리 턱

로를 해 가즈구선, 아중에 살 살히 아주 적었겠어.

그래 가주구선 한테 역졸들을 전부 불러 들여 가주구선 아 으째 그러나 허문 이놈덜이 팔도 삼남에 큰 도적놈이 라는데 너 둔탁에서 그집 있나구.

“아 저가 이 도적질을 해서 입신양 반된 사람이라구”

아 그저 안잡힐 수가 있나. 그래 왜 그 사람이 처음에 부자집 아들이 암만 달라구 그래 두 안주구 그래듣게, 그래지 않아두 좀 달라구 야단치는데, 그대 도적놈만 잡히면 이름이 나구 하는데,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서자출이요 그사람 밑에서 난거라구. 그러냐구 게 그 수관 잘하는 사람을 불러 털여 가주구 옛십년이 됐든지 이자에 이자를 쳐 주니깐 세간이 뭐 말할게 있나. 아전부 시간이 아주 모지란다 말야.

“그럼 어떻 험거냐, 그러니까 있는 데루만 주면 될게 아니나”

“그래 그래겠습니다”

“아 그럼 되느냐구 반씩 노나 갖게 허라”

구 삼쾌정을 했어. 게 그 삼쾌정을, 박어사가 했던 삼쾌정을 봤어.

#### [홍천읍 제보자 2]

연봉노인정, 윤경직, 남 76세.

1992. 5. 7. 서대석, 정재민, 신동현, 정인숙 조사.

황해도 안악군 용둔면 송곡리에서 태어나 황해도 황주군 삼전면 해송리

에서 살다가 1950. 12. 6. 월남하였다.

1951. 6. 3. 홍천고 전설시 군부대를 따라 왔다가 홍천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향에서 안악동창공립 보통학교와 사리원 농업설업학교를 졸업했고 공직에도 있었다. 만주에 9년간 거주했으며, 동북, 연변, 한림 등지를 유력했다고 한다. 유력한 지방의 역사와 설화를 많이 알고 있었으며, 경험담도 섞어서 구연하였다.

#### 〈누루하치와 이여란〉

\* 만주지방네 거주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하다가 조사자가 누루하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있다고 하면서 설화를 구연했다.

누루하치가 애신자라 아니.(조사자: 네) 애신자란데, 자기 조국을 자꾸 냉 나라에서 잡을라구 허구 뚜들기구 없애구 죽이구 헌게 그 당시에 동북에 태수로 와 있던 사람이 그 우리 한국에 임진왜란에 이여송, 이여백이 나완 그 장군의 아버님이 만주에 태수로서 그 전체를 토벌하라 냥 나갔든 모양여. 그 이여송시네가 이여송, 이여백, 이여매가 있어요, 그 삼형입니다. 그리구 이여란이라구 여자 누이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제 난초란자 쓰는 이여란이라구.

근데 자구 토벌을 때리구 하니 누루하치가 자구 쫓겨 대니구 하다가 이와이면 큰놈허구 한번 맞붙어 봐야 되겠단구, 그리구 이여송의 아버지가 토벌 겸 인계 수렵을 나갔죠. 나무 밑에서

여름철이니까 쉬는데 누루하치가 나무 뒤에서 오줌을 갈기는데 여자들한테 미안해요, 이놈이 나무를 넘어서 말이야 오줌기운이 소내기가 솔아진다 말야. 그제게 뜨거운 무리 쏘다지니 말이지, 그 부하들을 시켜서 알아 보라 말야. 알아 보니 그 짚은 놈이 오줌을 내다 갈기거던. 이놈이 나무를 넘어와요,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해선 불잡아 오라구 말야. 불잡아다 앞에다 끊렸어. 끊려 놓고,

“야 이놈아 너 오줌을 깔겨도 임마 이렇게 깔길수가 있느냐 말이지”

“아 그 오줌을 갈기는건 오줌을 누고 싶으면 아무대나 누는 것 아니요. 근데 장군께선 어떻게 자꾸 우리 족속을 잡으려 땅기고 토벌을 냉기쇼”  
말야. 또 오겠소 안 오겠소 말야. 또 온다면 나하고 한번 여기서 시합을 합시다. 실검으로나 생명을 걸구 안힌다면 모로거니와 게 가만 생각하니까 장래가 유망한 인물야, 아 그래서

“너 그럼 너 족속들은 토벌을 안힐 테니까 너 나허구 가서 마부 노릇 좀 안힐래”

“우리 족속만 토벌을 안힌다면 허죠.”

“아 그거 좋다. 가자.”

그 데루 갔다 말이지. 근데 이 양반의 딸님이 이여란이가 내 이런 말하면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여란이가 오줌을 누면 한자박 될대요, 딱(웃음), 그 여자 오줌이 근데 그 거짓말이겠지. 그 조 아버지가 생각하니깐 이년을 보

통 놈현테 시집을 보내선 사내 다 잡아먹어, 이거 보통 놈현테 시집을 보내선 안되겠다 이렇게 맘을 먹구 떠려갔단 말이지. 테려가서 마굿간 옆에 조그맣게 집을 짓구서 마부 노릇을 하지.

그런데 이여란이가, 마부가 보통 놈이 아니란 말야, 보기에는. 그래 하루 저녁에는 이여란이 무술이라는게 자기 오빠들이 이여송이 이여백이 보다두 나오, 그 무술이. 칼을 빼들구서 밭중에 깜깜현테 느닷없이 들어가서 칼을 휘둘렀어요. 누루하치가 가만히 누워 보니가 이거 보통 칼솜씨가 아닌데, 이 남자의 칼솜씨지, 여자의 칼솜씨가 아니라. 칼을 빼들고 함전에 비켜서서 칼 쓰는 솜시 좀 보자. 그냥 칼을 자구 쓰구 있거든. 그냥 보니깐 그 집 달야. 그래서

“여보 낭자 그 어떻게 칼을 합부루 쓰시오.”

말야.

“불 켜고 예기 좀 험시다.”

말야. 그래 불을 켜 놨어. 켜 놓고는 그래.

“그 칼을 쓸라면 정정히 당당히 들어오지, 깜깜한 밤에 칼을 빼들고 들어오는 것이 여자로서 예의에 맞느냐.”  
말이지.

“내 당신 슴씨 알았소. 오늘 밤에 같이 도망갑시다.”

말야. 게 누루하치 마누라가 이여송이 누이 동생여. (조사자 : 그 결국 우리 나라 사람이지요.) 그리케 결국 우해 나라서 피난나가 가주구 피난이 아니라,

국가에 사소한 죄나 무슨 죄를 저서  
중국으로 넘어가 가주구 이렇게 차차  
차차 등용되 가주구 될게 사실 우리  
조선족이거던, 그때 조선족이란 말야.

## 2. 홍천군 동면

[조사마을 : 홍천군 동면]

[동면 제보자 1]

동면 속초리 노인경, 허남훈, 남 71세.

1992. 5. 7. 이인경, 정대진, 이선재,  
전병득, 이승희 조사.

동면 총무체장 안수찬(홍천 읍내 거주, 40세)씨의 소개로 근처에 있는 속초리 노인정을 찾았다. 농번기였지만 마침 아침부터 비가 내려 노인정에서는 고스톱판이 벌어져 있었다. 오전에 설화, 단요 등을 채록하고 잠시 점심 요기를 하였다. 다시 노인정에 들렀을 때, 마침 제보자가 새로이 노인정에 나와 있었다. 제보자의 교육은 4년제 국민학교 과정을 마친 것이 전부이지만 별도로 한학 공부를 했다고 한다. 속초리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으면서도 여행 경력이 많았다. 경미소를 운영하고 있고 아들 사형제를 둔 비교적 유복한 노인이었다.

4편의 설화를 구연했으나 그중 서사적 전개가 분명한 <이태조와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범인 이야기>만을 소개 한다.

<이태조와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범인 이야기>

내가 그전부터…너무 길어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태조라고 하는데, 들은 얘긴데,

“아태조가 등극해 가지고서 참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 딸자가 그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사람 하나 불러서 내 생일, 내 생년 월일, 생일 생시까지 똑같은 사람이 있나 탐문을 해봐라.”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서 탐문을 하니깐 한 사람이 딱 있어. 그래 한 사람이 딱 있어. 국가에서 통첩을 해서 오라고 해서 왔단 말야. 그래서 대궐에 왕이 떡하니 앉았고 오가고 그러는데 지가 안울 수 있댔말야. 아무풀에 아무개 왔습니다.

“네가 생월이 언제고, 생일이 언제고 생시가 언제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하고 똑같거던.

“네 무얼하고 먹고 사니”

“산골에서 떡 하는게 있겠습니까. 단지 하는 거는 둘을 삼백 육십통을 칩니다. 둘을 삼백 육십통을 치고 그 삼백 육십통 가지고서 재우 밥이나 먹고 삽니다.”

그래, “그래 너 아들은 몇이나 두었느냐”

하니깐

“아들은 삼형제를 두었습니다.”

“손자는 몇이나 두었느냐” 하니까  
그래,

“손자는 여섯입니다.” 이 말이야.  
뻔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하고  
똑같거던. 그래 그 사람… 둘 삼백 육  
십통이면 삼백 육십일 나졸이 전부 먹  
여서 국민을 맥아 살리는 거란 말야.

그래서 ‘나하고 똑 같구나. 이상도  
하다.’ 그래 인제 대접을 잘해서 보내  
는데 가만히 왕이 연구를 할 때 금연  
적을 하나 만들었어. 금연적을 하나  
만들어서

“너 가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서 몇  
해가 되든지 내가 가져오라고 신청을  
하면 가져오거라”

그래서 그 연적을 허리에 매고 갔단  
말야.

그래서 인제 그것을 가지고서는 그  
비서를 시켜서

“너 저 사람을 내가 모으던 걸 하나  
주었으니까, 여하튼 그 사람이 주었던  
걸 하나 빼앗아오라”

빼길리가 있어, 그걸. 안 빼앗기지.  
그래 미리 가서 미리 연락을 해 가지고  
서는 그 큰 강이 하나 있는데 선장더  
러 그, 배 모는 사람더러 저 사람 전  
네주지 말고 내가 꼭 보자는 대로 꼭  
빼끼거던, 그걸 빼앗거던 전내주어라”

약속을 했어. 그래구 인제 그걸 보  
자고 뎅비는데 그래 그 사람이 그냥  
배를 전네 주겄어. 그래 안 빼끼고 사  
무 그냥 갔어. 배를 전너라고 해도 안  
전너 가네 이거. 배를 전너야만 집에  
갈텐데. 그래 한쪽에선 그걸 자꾸 보

자네 그래.

“그거 뭘 빼끼지 안 빼끼냐고” 말야  
한쪽에서 사공이 자꾸 설치며 얘기 할  
것 아나. 할 수 없이 그럼 배낀다고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그럼 이런 것이옵니다” 하고 배낀  
다 이 말이야. 그래 이 사람이 뚱쳤  
어. 뚱쳐서 물에 쑥 빠졌어. (빠졌단  
말이죠) 그럼 어어. 보이는데 뚱쳐서  
물에 쑥 빠졌으니, 깊은 데 머 큰 강  
물에 빠졌으니 전질라고 했는데 전질  
수가 있나. 자기는 죽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그냥 내빼고 말았지. 비서  
는 그냥 잣을게 아나. 그 사람이 와서  
그냥 두려누어 있는 거야. 집이 와서  
드러눕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가  
지구서 아들 삼형제가 빌고서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암만 멋한 일이 있어도 얘기하시라고  
그래두 아무 말도 안해. ‘나는 죽겠다.’  
이 얘기야. 그래 며느리들이. (구연자  
변형 : 이 얘기는 경로당에서 구술되었  
으며 옆에서 할아버지들이 회투판을 벌  
리고 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한분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와같이 이  
야기의 중간 중간에 끼어들어 서사를  
진행시키기도 하셨다.) 인제 그게 거기  
서 즉 말하자면 강에 빠진 게 강에 빠  
진 연적이 낚시꾼이 낚시를 했어. 낚  
시를 했는데, 잉어를 이런 걸(손짓으  
로 표시하며) 세 마릴 잡았는데 잉어  
장사가 잉어를 팔려 왔었다 이 말이야.  
그래 그 큰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잉  
어를 ‘우리 아버님 오시면 이걸 해 드

리게' 제일 큰 걸로 한 마리 샀어. 제일 큰 걸로 말더느리가 하나 사 가지고는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야. 보관 중인데 이제 배를 갈라서 그걸 쫄과서 이제 두고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배를 갈라서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다 이거야. 보관을 해 두고 있는데 제작에 다 보관을 해두고서 보관을 해 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두 그러는데 영문을 모르겠는데 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 그 말더느리가 덤벼서 목을 엔다 이거야 아주. 죽을 얘기도 하고 살얘기도 하고. 돌아가실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래 달머느리한테 안하느냐, 막 굳을 내면서 말더느리가 템빈다 이런 얘기야. 그래 그 얘길 다 했어.

"왕이 오라고 하시 같는데 이거 나를 고상스키려고 그러는지 그런 일이 있어서 베키라고 그래서 베꼈는데, 강에 둑쳐서 떨쳤는데 그걸 전질 수도 없고 먹 그냥 윗는데 이제 나는 살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어 죽어서라도 죽는 게 옳겠다."

그래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머느리가 뭘 알고 신관이 들어 좀 이상도 하다. 그런데 말더느리가 가지고 나오는 데 보니깐 그때 그거다 이 말이야. 그 놈이 먹고 그놈을 먹고 잉어가 가서 챙혀서 그 집에 가서 팔려서 그 연적이 나온거다 그런 얘기야.

그 아들이 얼마나 효도를 하고 머느리가 효도를 하고 그 근심이 없는 사람이, 근심시키려고 그런건데 근심이 이제는 그러니까 톡톡 털고 일어나서

밥먹을 것 다 먹고 오胤 때만 기다렸다 이거야. 그래 기다려서 있다가 가니까 별색 이렇게 오라구 그랬는데 왕이 내다보니까 회색이 만연하게 든. 이상도 하다. 저털리가 없는데. 보낸 놈을 갔다가 오라고 해서 호통을 치고 불러서 야단치니까

"아닙니다. 그게 꼭 그 사람이 내가 그걸 쳐 가지고 강에다 쳐 넣는데 어떻게 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더러 묻는다 이 말이야.

"그래 너 경이 어떻게 되서 그게 가져왔느냐."

그 사연을 전부 물을 게 아냐. 그리니까

"사실 억시 이만 저만해서 어떤 사람이 자꾸 와서 보자고 해서 베쳤더니 손으로 쳐 가지고서 그걸 강으로 떨구었는데 나는 그걸 가당도 못했는데, 그 집을 가는데 큰 머느리가 나 먹으라고 잉어를 잡았는데, 그게 배 속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그리냐고 나보다 사주팔자가 낫다고 나는 다 만조백관 근심이 더 하거던. 가만히 생각해 볼 데 왕보다 낫다고 사람이 일평상을 사는 것은 그달프고 마음이 근심이 없어야 되고 고로움이 없어야만이 사람사는 거 아냐 왕이 나보다 낫다고. 그래 똑같은 삶을 살 때에 용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단 이 말이야.....똑 같은 사주팔자에 도루 왕이나 그 사람이 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런 일도 있을까.

### 3. 홍천군 남면

[조사마을 : 홍천군 남면]

군의 남서부에 위치한 면. 면적 115.7 km<sup>2</sup>, 인구 8,000여명으로 면소재지는 양덕원리이다. 원래 금물산면이라 하다가 남면으로 개칭되었다. 까끈봉, 시루봉, 갈기산, 매봉산 등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나, 어룡천이 여러 지류를 합쳐면서 중앙을 북류하여 유역인 시동리, 유치리, 양덕원리 등지는 평야와 산록완사면이 형성되어 농경지와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 주산업은 농업으로 하천유역의 평야지대는 논농사가 행해지고, 잎담배와 흠, 인삼 등도 재배되고 있다. 삼층석탑, 이소호자정문 등의 유물, 유적이 있다.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있다.

[남면 제보자 1]

양덕원리 천축사, 배승호, 남 89세.  
1992. 5. 6. 박종성, 신미경, 후지아  
사리, 최현재, 민영근 조사.

양구 출생으로 젊은 시절에 금강산과 만주 일대를 유력하였다. 금화 수태사에서 득도하여 여러 절을 전전하다가 양덕원리 천축사를 개창하고 주지로 있다. 현재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나 발음은 비교적 분명하고 구연 능력이 뛰어난 제보자였다. 수타사, 청평사, 유점사 등 사찰연기설화를 많

이 알고 있었다. 여기서는 그 중 유점사 창사연기설화를 소개한다.

〈금강산 유점사 창사연기 설화〉

금강산 유점사 얘기를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조사자 :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다면 해 드리고 들으셨다면 또 뭐 재미도 없는 거를. (조사자 : 유점사, 금강산에 있는 유점사 말씀입니다?) 예. 근데 그 연조간은 모릅니다. 연조간은 모르는데 그게 뜻 서천 서역국에서 지금 인듭니다. 인도에서 아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아 보살님이 아침마다 맹기면 서랑에 놋쇠 뒤 주발 깨진 거 뒤 (조사자 : 예)에 그런걸 모아다가 설랑에 에 부처님 오십삼불을 조성했어요. 그리구 또 이기운을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허구설랑에 그 안에다 그 오십삼불을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거 동해 바다에서 황해 바다에 떠어 놓았어요.

“어느 나라에든지에 유연국토로 가시 음소서.” 부처의 이 불교의 인연이 있는 곳으로 가시오 그말이죠. 그러니까 그저 참머 순풍이 불더니 어느새 어디루 가는지 허허 바다에 떠서 보이질 않았다 그랬는데 그때에 그 고성에 에 혼령이 노춘이라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연조가 없어요. 뜻. 그 어떻게 지어 정원에 나와서 있을 때니까 공중에서 이우 소리가 영영영영 난다구, 그래 저 보니까 금강산으로 들어간다 말이죠. 그래서 터에 (조사자 : 예) 큰 연

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용이 아홉이 있어. (조사자 : 아) 그리고 그 절에는 큰 느릅나무가 하나 있는데, 가지가 원색이야. (조사자 : 예) 근데 가지마다 그 부처님이 한분씩 앉았단 말이야. 앉았는데, 지금 용과 대립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이상스레 용과 어떻게 대화가 됐는지나 그 알수 없는 일이야.

“터를 내다고 터를 내주면 우리가 여기다 절을 짓고 이 불법을 전도하겠다”

했드니 용은 말을 안듣고 (불명) 지는 편이며는 물려서기로 하자. 그러니 용을 보고서 쫓그럴 먼저 뭘 어떻게 하겠는지 이 먼저 해보라고. 아이 용이라는게 아나오디 뭐 아 구름을 일으키고 아 천동으로 천동 번개를 허고 비가 억수로 폐부설랑은에 아 모르겠어느 느티나무 중동까지 그렇게 물이 찼다구. 아 저아 보니까 그 느티나무 뿌리가 빠지면서 거제 쟁진단 말이지. 쟁기면 수마리마령 가서 앉었구. 그러니 용이 내중에는 전했어요. 이젠 우리는 덜 할 수 없다. 그 그러니까 오십삼불이 예 말로는 우선 부적을 써설랑 그 물에다 넣었다 그립니다. (조사자 : 아 부적을 써서요) 거다 너니 물이 설설 끓어요. 설설 끓으니까 용이 뭐야 용Knife 치니까 뜨거움을 못이겨서 그 용이 에 거기서 괴란을 가는데 그 왜 간데 하며 용이 나가다가 설랑에 용이 뭐 바우를 못본다 그러죠. 바우를 이렇게 쳐설랑 구덩이 이렇게 그려진 데가 있어요. 그저 거기를 구룡연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제 인제 용은 이제 완전히 다 쫓겨갔단 말이요, 근데 그 유점사 법당 더를 아노춘이가 아 이거 우리 고을에 살라모네 그저 두고 볼 일이 아니라구. 아 아난남그를 베어서 솟으로다 그 연못을 메꿨대요. 근데 그런 연못 듯 메우는 것은 솟이어야 전교하게 들이나 훑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데요. 되기는 되지마는 장구치 못하고 그래 거기다 절을 짓구 살라모네 유점사라, 그 느릅나무 유자 아 이저 외산 변에 절친다는 경자 그 유점사라 유점사라 그것도 짓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는 경로가 백천교리란 데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그 들어가면 이력이 다 있습니다.

가다니네 황무지 그 뭐 청포반 속으로 가는해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단 말이요. 예 가다나니까 노루가 하나 뛰어 나간단 말이죠. 그래 이제 노루가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아 그 저 절이 홀다랗게 그저 사람이 대겠는지 안맹겠는지 모르는 그런 데로 뛰여 간단 말이지. 그러나 환하니까 그 절 쫓아서 떠 가니까 가다 그만 노루는 없어지고 또 그랬는데 그 예 산등성이이라 이렇게 가도 이렇게 뒤가 나에도 했는데 여기면 그 지금 서낭당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개가 일어나면서 지지개를 부두 서구 설랑은에 그런 내편단 말이요. 그러니까 개 가는 데를 쫓아가니까 바루 그 유점사 터라 그거죠(조사자 : 아, 네) 그러한 영험담이 있습니다. 그 아제 예 유점사 사계에 나타난 거이 있습니다.

## 현대작가반 학술답사 보고서

### 1. 결단식 및 편성

1988년, 1990년 그리고 1991학년에 이어 4번째로 시도된 현대작가반의 학술답사는 1992년 4월 30(목) 16:00에 1동 203호에서 예비 모임 및 결단식을 가지고 조편성 및 임무분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번 학술답사의 대상작가인 이효석의 고향이고 「모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봉평과 대화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있었다. 현대작가반의 편성, 조사대상(작가와 작품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 # 편성

지도교수 : 오세영, 조남현 선생님

담당조교 : 이익성

참가자 : 박사과정 3명과 석사과정 11명, 학부과정 12명. 송기한(박사과정 수료), 김만수, 장수익(이상 박사과정), 배경열, 류철군, 다파요, 김민정, 김석권, 서정남, 손정수, 임도한, 조미영, 최지숙(이상 석사과정), 임수만, 김학군, 서재길, 이지영, 전봉관, 최재경, 강심호, 박주현, 박희일, 서형범, 정의관, 정형훈(이상 학부과정).

#### # 답사기간

1992. 5. 6~5. 8. (2박 3일)

# 조사대상 작가 : 이효석

# 조사대상 : 강원도 영월군 및 평창군 일대

### 2. 본조사 및 일정

5월 6일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 집결하여 당일 10:00 출발하여 오후 1:30 강원도 영월에 도착하여 고씨동굴을 관람하고, 저녁 이효석 문학에 대한 이익성의 「이효석 소설의 구조」와 배경열의 「동반자문제」 고찰을 위한 試考의 주제 발표가 있고 난 뒤 교수님과 학생들간에 격의없는 토론을 실시하였다. 영월읍에서 1박.

5월 7일 우천으로 답사가 어려워 영월의 명승지인 청량포와 단종의 능인 장릉등의 유적 답사를 마치고 오후 평창군에 도착하여 「모밀꽃 필 무렵」에 대한 류철균의 주제 발표에 이어 「모밀꽃 필 무렵」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였다. 평창읍에서 1박.

5월 8일 평창읍에서 대화를 거쳐 통령으로 이동하여 이효석의 「모밀꽃 필 무렵」의 배경을 답사하고 이효석 기념관(봉평읍 소재)과 이효석 生家址를 직접 견학하고 장평으로 돌아와 서울로 귀경.

### 3. 문학 토론회 내용

# 첫날(5월 6일) 주제 발표

1. 李孝石 小說의 構造 : 이익성

生涯 : 李孝石은 1907년 2월에 출생하여 1942년 5월에 죽은 작가이다. 그

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남안동에서 아버지 李始厚의 외아들로 태어나 봉평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20),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경기고등학교전신)을 거쳐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였다(1925). 1927년에 영문학과에 진학하여 1930년 3월 경성제국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제국대학 재학시부터 소설을 창작하였고 1931년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겸 열판으로 취직하기 전까지의 그의 작품 경향은 동반자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일정한 변모를 가져온다. 겸열판을 하면서 이갑기와의 논전을 거치고, 그 자리를 그만두고 그의 부인의 고향인 경성으로 가서 2년간의 농업학교 영어교사를 한다(1932~1934). 1934년 경부터 평양으로 이주하여 숭실전문학교 교수가 되어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였다. 1938년 3월 31일 평양 숭실 전문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교수직을 퇴임하였다. 그리고 1939년 대동전문학교에서 죽을 때까지 교수직을 계속했다.

연구사 : 이효석 소설에 대한 검토가 많았던 이유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첫째로는 이효석의 초기소설에서 보여준 동반자적 작품성향이 라기보다는 1933년 이후 창작한 소설들의 순수소설적 작품 성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둘째로는 이효석이라는 작가 개인적 특징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효석이 그와 같이 활동하던 1930년대 작가들과는 달

리 1942년에 사망함으로서 일제 말기 와 율유 해방 그리고 분단이라는 격변기를 겪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즉 다른 당대의 작가들의 작가적 캐릭터와 관련된 외부적 제약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작되었던 이효석에 대한 논의는 1932년까지의 동반자적 작품경향과 그 이후 순수소설적 작품성향에 대한 관심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보면 후자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전자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 가면서 전자와 후자의 종합적인 면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李孝石 短篇小說의 類型學 : 우선 이효석의 단편소설은 시기상으로 보아 크게 2시기로 구분되고, 각각 보아 3시기로 구분된다. 그 첫번째 시기는 본격적인 등단을 전후해서 시작하여 소위 동반자적 성격을 띤 소설을 발표한 시기를 가르킨다. 이 시기에 발표된 작품은 〈주리년〉, 〈都市와 幽靈〉, 〈行進曲〉, 〈奇遇〉, 〈弱齡記〉, 〈깨뜨려지는 紅燈〉, 〈追憶〉, 〈上陸〉, 〈麻雀哲學〉, 〈北國私信〉, 〈露領近海〉, 〈午後의 谐調〉, 〈초선〉, 〈프렌류드〉, 〈北國點景〉, 〈우리온과 林檎〉과 掌篇 Comte 들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작품 대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하고 감상적이고 비분명개조의 語調 등으로 이효석 자신이 의도했던 운동에의 관심과 관련된 동반자적 작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작품들은 작가적 의도

와는 달리 그의 소설에는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Exoticism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이효석 소설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 드러나고 있는 측면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크게 보아 두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1933년 이후의 작품으로 이들 작품에서는 초기 소설 작품의 동반자적 작품 경향이 불식되면서 새로운 면모를 나타낸다. 이 시기의 단편소설들은 1938년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2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1933년에서 1938년까지의 소설들이 그 이후의 소설들에 비해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시기의 단편소설들을 유형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우선 1933~1938의 단편소설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의 작품인데 이들 작품은 이효석 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것으로 〈豚〉, 〈수닭〉, 〈山〉, 〈粉女〉, 〈들〉, 〈고사리〉, 〈모밀꽃 펠 무렵〉, 〈개살구〉, 〈영계〉, 〈山精〉, 〈사냥〉 등의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시골의 전강성 내지는 향수가 드러나는 단편소설 등이다. 그리고 두번째 유형의 단편소설은 이효석 단편소설에 있어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마음의 意匠〉, 〈日記〉, 〈受難〉, 〈季節〉, 〈天使와 散文詩〉, 〈人間 散文〉, 〈聖餐〉, 〈插話〉, 〈하르빈(哈爾濱)〉, 〈聖樹賦〉, 〈薔薇病들다〉, 〈幕〉, 〈空想俱樂部〉, 〈해바라기〉, 〈가을과 山羊〉, 〈旅愁〉와 같은 작품으로 첫번째 유형과는 달리 도시적

일상성을 기반으로 현대적 생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소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유형의 소설은 첫번째 유형의 소설과도 구분되고 두번째 유형의 소설과도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소설적 구성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채 수필적인 성격을 띤 소설인 〈柘榴〉, 〈落葉記〉, 〈마음에 남는 風景〉, 〈獨白〉 등을 들 수 있다.

시기 상으로 마지막 시기인 1938년에서 이효석이 죽은 1942년까지의 단편소설들은 앞의 시기와는 일정하게 구분되는 작품 성향을 지닌다. 앞시기에서 대표적인 경향으로서의 첫번째 유형의 소설에 근접하는 작품으로 〈山峽〉이 거의 유일하게 창작되고, 도시의 일상성을 중심으로 현대적 생활의 편린을 보여주는 소설이 주로 창작되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가령 〈附錄〉, 〈해바라기〉, 〈皇帝〉, 〈鄉愁〉, 〈一票의 功能〉, 〈라오콘의 後裔〉, 〈日曜日〉, 〈풀잎〉, 〈萬甫〉 등의 작품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르면 일본어로 창작된 일군의 작품이 드러난다. 즉 상고주의적인 취향을 나타내면서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은은한 빛〉, 〈素服과 青磁〉, 〈봄衣裳〉, 〈영경퀴의 章〉의 작품이 있었다는 것도 주목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시기상으로 유형화한 단편소설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다시 구분해 보면, 도시적 일상성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고뇌를 그린 일군의 작품(여기에는 초기의 동반자적 경향을 지닌 단편소

설들과 그 이후의 소위 순수소설들이 포함된다)과 시골의 건강성을 중심으로 향수적 세계를 지향하는 소설(여기에는 性的인 모더브를 포함하는 작품들과 도시인의 심정에서 지향하는 향수의 정서를 그리고 있는 소설들이 포함된다)로 구분된다.

人工的 自然趨向의 抒情性: 이효석 소설에 있어서 도시의 일상성을 중심으로 하는 소설들이건 시골의 건강성을 드러내는 소설들이건 소설에 있어서 서정성은 새로운 발견과 관련된 묘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효석 소설에 있어서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크게 나누어 시골이라는 공간배경과 도시라는 공간배경으로 구분되는데, 이 둘은 모두 도시인의 향수를 자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분류한 시골의 건강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효석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공간이 아니라 도시인의 눈에 비쳐져 만들어진 자연이다. 시골이라는 소설 공간 자체의 특질로 서정성에의 경사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性的인 것에의 관심은 앞에서 언급한 공간적 배경위에서 원시적 생명력과의 관련하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도시의 일상성을 기반으로 현대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소설들은 물론 시골의 건강성을 중심으로 하는 향수적 소설을 어떻게 같이 논의할

것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소설에서는 이효석 자신이 생활하는 실제적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서사공간으로서 드러난다는 표면적인 이유에서보다는 묘사 자체가 주인공의 의식에 치중하고 있다는 심층적인 이유에서 서정소설로의 가능성성이 배태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것을 후자는 작중 화자의 낭만성에서 찾기도 하는데, 필자는 이효석이 주장하는 단편소설의 서정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경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효석은 소설에 있어서 서정성이 새로운 발견과 관련된 묘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초기의 동반자적 경향을 떠 초기의 소설은 물론 1933년 이후의 도시적 일상성을 그리고 있는 소설들에도 새로운 발견으로서의 묘사에 집중이 커다란 비중을 지닌 채 드러나고 있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은 초기 소설에서 윤락여성의 임금투정의 문제나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북국에 대한 열망, 그리고 국내 운동에 있어서 여성과 관련된 낭만적 사건 전개에서도 쉽게 보여지고 있으며, 이후 소설에 있어서 앞에서 논의한 작품을 제외한 작품에서 드러나는 소시민적 생활에의 합물과도 연관된다. 결국 우리는 1933년 이후 소설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적 일상성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소설들이 작가 자신의 일상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설화함으로써 작가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건 자체의 흥미

보다는 새로운 발견으로써 묘사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2. <동반자 작가 문제> 고찰을 위한 試考 : 배정열

한국 문학에 있어 동반자적 작가문제는 오랜 시일을 두고 논쟁을 계속해 왔다. 문단인들이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동반자 작가'에 대한 용어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 있어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아울러 동반자적 작가 문제를 논할 때는 항상 1928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동반자 작가에 대한 개념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착오라 생각된다. 즉 혁명 후 러시아의 전반적 파괴와 내란을 수습하고 신경계 정책을 펴던 시기에는 극단적인 정치적 좌익분자가 아닌 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동반자 작가의 일원이 될 수 있었지만, 1928년 이후에는 지적 활동에 스탈린의 간섭이 시작돼 문학을 <대중조직의 도구>로 규정하고 작가들도 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과업의 선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강요당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경제의 전향에 대한 동반자 작가들이 지난 애매한 이중적 회색적 입장때문에 이들은 분열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좌경적 동반자 작가와 우경적 동반자 작가로 나누어 지는데, 전자는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로 신홍 러시아의 현실에 접근해 있고 후자는 점점 보수적 색채의 농도를 더하

여 절차 혹은 급속히 사회적 존재와는 무관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동반자 작가 논의는 주로 전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던 것으로 필자는 후자와 연결시켜 이효석을 논하려고 한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보면 한국 문학에서는 신경향파가 등장하여 1931년까지는 경향적인 것이 한 시대 풍조로 유행했던 것으로 이 동안에 활동하였던 문단인의 태반이 그같은 사조에 감염되었던 바 이들을 통칭하여 광범한 의미의 동반자 작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문학사에 있어 동반자 작가의 특징을 요약하면, ① 인텔리 출신의 작가로서 사회주의적 혁명의 역사적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② 당의 지도 노선을 부정하며, 작품 속에서 항상 인텔리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③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의의를 승인하며, 프로 작가와 이에 동조한 일군의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요건에 합당한 작가로는 이효석과 유진오를 들 수 있다.

1920년대 중반기에 한국에 있어 맑스주의는 시대적인 상황과 조국 광복이란 민족적 지상 목표와 연결됨으로써 당시의 지식 청년들에게 아편과 같은 마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효석 역시 이 시대적 유형에 딸착태 있었다. <노령근해>로 대표되는 소위 효석의 동반자 작가 시절의 작품에는 관념적으로 상당히 프로적인 것에 경도되어 있음

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견지로 문학 작품의 미흡함을 지적하여 동반자 작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은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착오라고 생각한다. 전술한 바 동반자 작가란 러시아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한국적인 적용 역시 러시아의 원천적인 것과의 대비 속에서만 뚜렷해질 수 있는 것으로 우정적 동반자 작가와 효석과의 비교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상당 부분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지식 청년, ② 새 시대에 알맞은 형식을 갖춘 새로운 문학창조, ③ 혁명적 제재로 많은 작품을 창작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

을 취한 점, ④ 그후의 「문학 활동상」의 변절 등이다. '따라서 이효석의 초기 작품에 명명된 소위 동반자 작가란 칭호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써 필자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우정적 동반자 작가」로 칭함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본다.

# 둘째날(5월 7일) 주제발표  
「모밀꽃풀두렁」에 대한 일고찬 : 류철균

#### 4. 전체평가 및 해단식

5월 21일 16:00, 1-203에서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을 가졌다. 여기서 석사과정 순정수가 현대작가반의 활동 상황을 보고했다.

## 방언반 학술답사 보고서

### 1. 답사기간과 답사지역

방언반은 1992년 5월 6일(수)부터 5월 9일(토)까지 忠南 保寧郡 驪川面 蘇城里에서 방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참가인원

참가한 인원은 지도교수 崔明玉 선생님과 조교 裴株彩 외에 석사·학사과정 학생 12명으로 총 14명이었다. 조편성은 다음과 같았다.

제 1조 : 崔明玉(지도교수), 王克全(석2), 金玉花(석1), 李秉駿(학2)

제 2조 : 裴株彩(조교), 河貴女(석1), 宋源容(학3)

제 3조 : 梁忠公(석2), 朴龍燦(석1), 卞南塔(학3), 李炫定(학2)

제 4조 : 朴鎮浩(석1), 俞弼在(석1), 吳淑和(석1)

### 3. 활동내용

5월 6일 10시 40분에 서울역에서 기차로 출발하여 대천에서 버스를 타고 오후 4시에 보령군 오천면 소성리에 도착했다. 숙소를 정한 후 1조와 4조는 밤까지 마을에서, 2조와 3조는 동문밖 마을에서 제보자를 구했다. 5월 7일은 미리 준비해 간 『한국방언조사 질문지』(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제 2권 어휘편의 「인체, 인륜, 상태,

동작」의 항목들을 조사했다. 5월 8일 어버이날은 제보자들이 면사무소 주관의 어버이날 잔치에 참석하는 바람에 조사를 계속할 수 없었다. 5월 9일은 질문지의 제 5권 음운편의 「단모음, 이중모음, 움라우트」의 항목들을 일부 조사했다. 오전 11시에 조사를 마치고 대천역에서 오후 1시 반에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를 탔다.

### 4. 평가회 및 해단식

#### (1) 자체 평가회

5월 8일 저녁식사 후에 간단한 중간 평가회를 가졌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첫 방언조사였기 때문에 제보자를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질문하는 요령, 방언형 받아적기 등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소중한 체험이 되었음을 토로 했다. 중간 평가회에서 한번 반성을 거친 때문인지 5월 9일 오전에 실시한 조사는 질문하기 어려운 음운편의 조사였는데도 모두들 7일의 조사보다 훨씬 재미있는 조사가 되었다.

#### (2)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

1992년 5월 14일 오후 4시 1동 203호에서 학과 주관으로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이 있었다. 방언반은 梁忠公군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 문현반 학술답사 보고서

### 1. 답사 지역 및 조편성

문현반에서는 1992. 5. 6.(수)부터 5. 9.(토)까지 3박 4일간 충남 논산군 일대에서 답사활동을 하였다. 답사에 앞서 4. 30.(목)에 민병수, 권두환 선생님을 모시고 제반 준비 상황을 확인한 후 답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문현반의 인원은 아래와 같다.

- 지도교수 : 민병수, 권두환 선생님
- 이종목, 강석중, 구본기, 김광조,  
이주영, 송성욱(박사과정), 황재  
문(석사과정)

### 2. 활동내용

1992. 5. 6. 10:00에 반포에서 승용차 편으로 출발하여 14:00 경에 논산에 도착하여 논산군청에서 논산군 일대의 문현실태에 대한 현지사정을 듣고 연산면 소재의 둔암서원으로 갔다. 둔암서원은 조선 인조때 창건되고 현종때 사액을 받았으며 주향은 김장생 선생이고, 본전외 총도당 등의 도지경 문화재가 있었다. 둔암서원에서 『沙溪全書』, 『黃岡實記』, 『經書辨義』 등 의 책판 2,000여점과 열람하고 기타 고문한과 고문서 100여종을 조사하였다. 둔암서원에서 1박을 하고, 5. 7. 오전 김장생 묘소 일원에서 묘지명과 신도비 등을 조사하였다. 연산서원과

왕산김씨 짜실 등을 함께 관람하고 오후에 노성면 소재 윤중 선생 고택과 절리사 등을 찾았다. 윤중 선생 고택은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데 숙종 때 건립된 이 집은 조선시대 양반 상류층의 전형적인 가옥 형태를 알게 해주었다. 윤중 선생 고택에 많은 전적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니 소유주의 병환으로 자세히 조사하지 못하였다. 가치 있는 문헌이 많은 것으로 짐작되므로 후일 재조사를 요한다. 5. 8. 오전 양촌면 세재 쌍계사를 답사하였다. 쌍계사에서 불경이 인각되었으나 책판이 동학사에 보관되어 있어 열람치 못하였다. 오후에 부적면에 있는 파평 윤씨 문중으로 가서 윤보중씨의 도움으로 전적 600여종을 조사하였다. 辛壬獄事를 자세히 적은 필사본 『辛壬日記』, 25장으로 된 가사 『천지인삼재론』, 기다 『江陽記事』, 圖冊 등 주요한 문헌이 다수 있었다. 저녁 식사후 자체 평가회를 갖고 5. 9. 09:00에 서울을 향해 출발하였다.

### 3. 평가회 및 해단식

- 자체 평가회

5. 8. 저녁에 답사에 참가한 인원 전원이 부여로 가시 자체 평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책판의 열람을 통해

고서적의 인간 경위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는 점, 묘지명과 신도비의 실제를 볼 수 있어 한문학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였다는 점, 윤증 고택을 봄으로써 조선 사대부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고, 문현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진행될 수 없으므로 충분한 기간과 사전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자체 반성도 있었다. 특히 윤증 선생 고택에 소장되어 있는

전적을 열람치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많이 이야기되었다. 또 답사 방법에 있어 구비문학반과 기타 고전작가반 등을 함께 연계해야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

1992. 5. 21. 16:00, 1동 203에서 학과 주관으로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이 있었다. 문현반은 황제문(석사과정) 군이 조사 결과를 보고 하였다.